

이교 길들이기에 나선 그리스도교

서양의 금서 이야기 — 8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중세는 그리스도교의 원리가 한 개인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지배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중세 초기에는 이교가 아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사적 영역에서는 5세기 이상이나 다신교 시대의 관행이 유지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교의 영향력은 서서히 줄어나갔다. 그리스도교가 이교적 관행에 쐐기를 박으며 중세인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1050년을 기준으로 삼아 중세를 두 시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전기는 475년부터 약 600년간 지속하면서 중세의 틀을 갖추는 시기였다. 7세기부터는 라틴계 그리스도교 세계, 그리스계 그리스도교 세계, 이슬람 세계가 서로 경쟁했지만, 대체로 라틴계 서방세계가 제일 뒤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8세기초, 이슬람 세력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 땅으로 쳐들어 왔을 때, 732년 푸아티에 전투에서 샤를르 마르텔이 승리를 거둬 서방세계에서 그리스도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서방세계의 시련은 이로써 끝나지 않았다. 9세기와 10세기에는 동쪽에서 헝가리족, 남쪽에서 이슬람 세력, 북쪽에서 바이킹족이 침략했기 때문이다. 이 위협에 대처하는 동안 서유럽은 카롤링 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조직을 갖추면서 탈바꿈했다. 프랑스에서는 왕의 군대가 바이킹의 침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그 결과 정치권력이 산산조각났다. 이것이 봉건제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왕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은 10세기에 눈부시게 위기를 회복해 나갔고, 영국은 데인족의 공격을 받아 앵글로-색슨족의 몇 개 국가가 통일을 이룬 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의 중세 전기는 이렇게 흘러갔고, 이 기간에 그리스도교는 정신뿐만 아니라 몸까지 통제하는 원리가 됐다. 그러나 그것은 늘 경쟁자를 갖고 있었다. 고대 로마부터 내려오거나, 게르만족이 가져온 이교정신은 물론,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교가 모두 그리스도교의 경쟁자였던 것이다. 이제부터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이교정신을 길들이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0세기까지 잔존했던 이교의 관행

어린 시절 우리는 동무들과 내기를 했다. 그것은 책을 아무렇게나 펼쳐서 나오는 쪽수를 가지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산출한 숫자를 비교해 이기고 지는 내기였다. 서양의 중세에 이처럼 책을 이용해 재수를 점치는 방법이 있었다. 중세의 성직자는 《성서》를 아무렇게나 펼쳐서 첫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줄을 읽고는, 미래에 대한 점을 쳤다. 《성서》를 예언에 이용하는 독특한 방법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은 원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는 들어 있지 않은 방식이었다.

사실, 주교와 성직자는 적어도 10세기까지 이교의 관행이 계속 살아 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공적 관행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지배자였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이처럼 5세기 이상이나 다신교 시대의 관행이 거의 완전하게 유지됐다. 다신교 시대의 관행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예로 점을 치는 행위를 꼽을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인간세상에 늘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점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가지고 중세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작은 까마귀가 지저귀며 왼쪽으로 돌면서 날면 여행이 길하다는 뜻이었다. 부엌의 뜨거운 재에 보리를 흩뿌렸을 때, 날알이 공중에 튀어오르면 큰 위험이 닥친다는 뜻이었다. 말이나 황소가 채채기를 하거나 똥을 쌀 때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들이 이처럼 힘을 발산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루의 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낼 수 있었다. 예언은 죽은 사람을 불러오는 것과도 연결돼 있었다. 한밤중에 황소가죽의 피가 묻은 부분을 위로 해서 깔고 앉은 점쟁이는 영혼을 불러와서 갈등이나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낱알이 어떠한지 미리 알아냈다.

그리스도교에서 다신교의 관행을 채택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게르만족은 룬(rune) 문자로 된 《성서》를 간직하고 있었다. 미셸 루슈는 '룬'이라는 낱말이 '비밀'을 뜻하는 동시에 '정다운 여자에인'을 뜻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룬 문자('y'는 재산·호감, 'n'은 고난·불행, 't'는 승리, 'j'는 풍년)를 막대기에 새겨 넣고, 여성이 막대기를 뽑아 운을 점치도록 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에도 이런 관행을 채택해서, '성자의 제비뽑기'라고 불렀다.

이처럼 문자는 구비전승의 문명에서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대상이었다. 《성서》는 물론 《성서》를 적는 문자, 그런 문자로 적는 일상적인 서적조차도 저 세상에 대한 말을 전하는 투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돔즈데이 북(Domesday Book)》은 1086년 정복왕 윌리엄이 세원을 정확히 밝히려는 목적에서 영국의 토지재산을 체계적으로 등록한 책이었지만,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어떤 영지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 책에서 그 영지에 관한 부분을 읽고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왕과 영주의 권리를 아주 상세히 나열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문맹자는 글이란 신비스러운 동시에 미래를 예견해주기도 한다고 생각했다.

다신교 제압에 나선 그리스도교

오늘날 우리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시대를 열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전파하는 시대를 끝내고, 시청자가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시청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을 만큼 준비를 갖췄다. 중세의 기적에도 '주문형 기적(Miracle On Demand)'이 있었다. 원칙적으로 기적이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신교 시대에 기원을 둔 신명심판(ordeal)이 중세에 나타나 전보다 더 성행했다.

신명심판은 사람이 신의 뜻을 물어 죄를 가려 내려는 행위였다. 이같은 기적은 불·물·결투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불의 시련은 귀족에게만 해당했다. 예를 들어, 뜨겁게 달군 보습날 위를 맨발로 걷게 한 뒤, 3일 뒤에 검사해서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무죄였다. 평민층에 대한 물의 시련은 뜨거운 물과 찬 물의 두가지였다. 특히 찬 물의 경우 마녀를 가려내는 방법이었다. 신성한 연못에 몸을 묶어 던져 넣었을 때, 마녀는 물에 뜨고, 정상인이면 물에 가라앉았다. 뜨거운 물 시련은 손목이나 팔꿈치까지 뜨거운 물 속에 넣어 삶은 돌을 집어내는 것이었다. 끝으로 결투는 진 쪽에 대해 거짓 맹세의 혐의를 거는 심판이었다. 이같은 심판은 13세기 중엽 이후 사라진다.

그리스도교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중세의 그리스도교를 위협한 것은 다신교만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교의 모태인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특히 <구약성서>를 공유했던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에 큰 부담이었다. 탄압이 시작됐다. 먼저 유대교의 <미드라슈>가 금서가 됐고, <탈무드>도 가톨릭 교회의 검토를 받기 시작했다.

생활도 지배했다. 그것은 다신교 정신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로 성생활을 지배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신교 정신과 일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유산, 그리고 유산과 혼동한 피임, 특히 성불구로 만드는 행위를 죄악시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알몸을 보이는 행위는 물론, 월경시의 성관계나 출산 전후의 성관계를 불결하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다신교 정신을 억압하면서도 거기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요한 요소를 채택한 결과였다.

첫째, 결혼의 목적은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으며, 부부의 순결을 완전히 유지하는 한 자녀의 생산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인은 피나 그밖의 분비물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이었다. 이같은 생각은 <마태복음>(15장 18절)의 가르침과 완전히 모순된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언사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정신적 순수함과 육체적 깨끗함을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남자가 일상생활에서 진흙과 두엄을 묻히면서 살아가던 농촌에서 어떻게 몸을 깨끗이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정신적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

이처럼 그리스도교는 다신교 정신을 정복하거나 제 나름대로 전유했다. 그러나 우리가 살피



신명심판은 중세전기에 성행한 이교도적 전통의 대표적인 예다. 일종의 '주문형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심판으로 마녀를 가려내기도 했다. 사진은 고야의 <마녀가 요술로 악마를 쫓는 정경>.

고 있는 이 중세의 전반기에 다신교만이 그리스도교의 경쟁자였던 것은 아니다. 유일신교로서 그리스도교의 모태인 유대교와 7세기초부터 생긴 이슬람교도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던 것이다. 특히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와 <구약성서>를 공유했다. 유대인은 3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탈무드>를 쓰는데, 이것은 <구약성서>와 함께 유대인의 <성서>가 됐다. 이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겼다.

금서가 된 <미드라슈>

동로마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553년 오직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쓴 <성경>만 사용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아직 <탈무드>는 직접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미드라슈(Midrash)>는 금서가 됐다. <미드라슈>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율법과 관습을 랍비들이 해석한 글을 모은 책이었다. 기원전 100년 이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미드라슈>의 글은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법, 전통적인 법을 제외한 성문법,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전설이나 설교나 해석으로서 법보다는 윤리나 신학과 관련된 글로 이뤄졌다. 7세기나 8세기부터는 <탈무드>도 가톨릭 교회의 면밀한 검토를 받기 시작했다.●